

印度 高等敎育의 발전과 개혁 동향

白 賢 基

(前 유네스코 APEID 院長)

印度의 高等敎育은 원래 英國의 통치하에서 출발하여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의연하게 印度의인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國家 發展을 위한 기본 명제로 統一的·機能的·生産的 高等敎育의 실시를 중요한 敎育體制로 수용하고 있다.

1. 印度 高等敎育의 發展과 現況

1) 高等敎育 발달과 현황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高等敎育의 歷史를 가진 나라이다. 이미 B.C. 1,500 년경 오늘날의 大學과 같은 거대한 學問의 殿堂이 있었고 A.D. 1,200 년경에는 그러한 전당이 여러 개 出現했다고 한다. 그러나 1,600 년 이래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西洋 學問을 가르치는 學校가 발달했고, 여기에 英國의 東印度會社가 깊이 관여했으며, 특히 이른바 東洋主義(Orientalism)를 추진할 목적으로 大學다운 大學이 설립되었으니 그 대표적인 두 大學이 Calcutta Madrassa 大學과 Benares Sanskrit 大學이다. 전자는 최초의 英國 總督인 Hasting 이 1781 년 설립하여 회교도 자녀를 대상으로 그들이 高位職에 취임할 수 있도록 敎育하면서 회교도에 대한 회유책도 아울러 꾀했다. 한편 후자는 전자와 같은 목적에서 1791 년에 Benares 의 英國 駐在官 Duncan

이 설립했으며 유럽인 재판관의 Hindu교도 助手를 기르고 아울러 인도의 文化·文學·宗教를 보호·육성한다는 목적을 추가하여 그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인도의 近代高等敎育은 1854 년 C. Wood 의 ‘敎育措置(Education Dispatch)’로 출현되었다. 이 조치에서 政府는 初等敎育에서 고등敎育까지의 적절한 敎育制度를 만들 것과 大學은 London 大學校의 형태를 모방할 것, 그리고 大學은 적절한 試驗에 통과한 사람에게만 入學 資格을 줄 것 등을 명시하였다. 이 영향으로 1857 년에 Calcutta, Bombay 그리고 Madras 등 3 개 國立大學校가 설립되었으며 이들의 한 大學校에는 여러 개의 독립된 單科大學들(colleges)이 加入되어 있으며 入學은 신분, 지위, 종교에 상관없이 試驗에 합격하면 승인되어 수학하고, 수학 후 다시 시험에 합격하면 學位 또는 名譽稱號를 주었다. 그 이후 계속 이러한 大學校와 單科大學들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1902년 ‘大學教育委員會(University Commission)’가 구성되었고, 1904년에는 ‘大學教育法(Universities Act)’이 제정되어 大學의 教育과 研究를 법적·체제적으로 뒷받침했고, 선거에 의한 대학 행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英國 植民地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 정책은 당시 강력했던 인도 民族主義 운동에 의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2차 대전 후 1947년 인도가 독립됨에 따라 이듬해에 ‘大學教育委員會(University Education Commission)’가 聯邦政府 산하에 구성되어 그 나라 大學教育에 관한 전반적 연구를 하여 現在와 未來의 적절한 개선과 확장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大學의 목적과 운영, 質의 維持, 教育 內容, 入學 基準, 講義用 言語 등 大學의 발전과 연구, 그리고 學生의 후생 복지 등 모든 分野에서 혁신적 제안을 했고, 그 이후 계속된 연구와 개선 조치에 힘입어 오늘의 인도 高等教育體制와 특징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인도의 高等教育機關은 이른바 單科大學을 중심으로 발달되었으며, 많은 경우 이들 單科大學들은 私立이라는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이들을 수용한 綜合大學校들도 이러한 특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인도의 高等教育機關은 크게 5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그것은 ① 綜合大學校(universities), ② 加盟型大學校(affiliated type university), ③ 國家的重要성에 의해 指定된 高等教育機關(institutions declared of national importance), ④ 大學校認定教育機關(institutions deemed to be universities), ⑤ 私立으로 發足된 새 高等教育機關 등이다(UNESCO, 1986).

첫째 형태인 綜合大學校는 聯邦政府 또는 州의 法律에 의해 설립된 單一型(unitary)의 大學校를 말한다. 이 大學校들은 모두가 國立 또는 州立이며 이들의 특색은 學科 中心으로 大學의 모든 활동이 실시되는 형태로서 教育의 종류와 教育과정, 教育 수준, 기타 관리와 행정을 獨自의 것으로 결정·수행하며 일반적으로 特定地域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 教育은 大學校가 직접 임명했거나 또는 大學의 관할권 속에서 임명된 教

授가 담당한다. 둘째로 위의 單一型과는 대조적 형태인 加盟型 大學校는 오늘날까지 인도 고등교육 기관의 壓到的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로서 원래 독립적으로 설립·운영되던 單科大學들(colleges)이 서로 加盟해서 綜合大學校를 이룬 것이다. 綜合大學校가 이들 단과대학들을 특별히 인정해서 그 傘下에 흡수하고 그 綜合大學校가 규정하는 教育課程이나 syllabus에 준해서 가르치되 獨自性은 의연히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傘下의 단과대학들은 地域적으로 分散되어 있으며 때로는 1개 州 이상의 州에 분산되어 있다. 그 나라의 大學들은 원래 이 형태였으며 그 중에는 아직도 獨立적으로 존재하는 單科大學들도 있다. 이상 두 綜合大學校의 공통적 특징은 卒業 試驗의 실시와 學位授與權을 大學校가 관장한다는 점에 있다. 세계 형태인 國家的重要성에 의해 인정된 高等教育機關은 특별히 그 나라 聯邦政府가 국가의 중요한 고등교육 기관이라고 宣言해서 인정된 기관이며 여기에서는 모든 學位를 수여할 수 있는 權限이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인도 工科大學(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과 그밖의 몇 개 工科大學들이 미국의 M.I.T.를 모방하여 인도 工科大學法(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Act, 1961)에 의해 설립된 것이 있다. 네째로 大學校 認定 教育機關은 이른바 ‘大學補助金委員會法(University Grants Commission Act, 1956)’에 의해 그 위원회가 추천해서 존립하는 大學으로서 政府가 大學에 준한다고 認定한 기관이며 特定分野에서 學位 또는 資格證을 주는 高級課程까지도 개설하고 있다. 이 대표 기관으로 Jamia Millia Islamia(1920년 설립), Gujarat Vidyapeeth(1920년 설립), Grukul Kingri Viswa-Vidyalya(1920년 설립)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들은 인도 民族教育史에서 대단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끝으로 세로 설립된 大學의 형태는 Poona에 있는 Indian Institute of Education, 혹은 Bombay 근교의 Ghandi Vidiavith 같은 기관들이 속하는 것으로 이들은 주로 教育者들이 중심이 되어 農村事業과 敎員養成을 위주로 해서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므로 실재는 私立機關이지만 州政府의 지원을 크게 받기 때문에 국립

기관처럼 보인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발전하던 大學校들이 1925년까지는 각기 獨自의이었으며 각기 大學校에 관한 特別法이나 憲章에 의거하여 운영될 뿐이었다. 그러나 1925년에 비로소 大學 機能을 지원하고 大學 관련 정보 센터로서의 역할을 위해 '印度大學教育聯合會'가 조직되어 체계적·협력적 大學 發展을 추구하게 되었다. 1973년 그 명칭은 인도大學校協議會(Association of Indian University: A.I.U.)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25년 당시 15개 大學校로 반쪽했던 것이 1985년에 152개 會員校로 증가되었다(UNESCO, 1986). 특히 오늘날 이 기구는 인도내 大學間 또는 外國 大學과 비교해서 均等性을 유지하도록 대학을 支援하는 일을 중요 임무로 하고 있다. 다른 教育 段階에서처럼 大學教育도 聯邦 憲法 規定에 따라 州政府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大學校 教育에 관한 조정이나 水準 決定의 책임에 있어서는 聯邦政府의 관련 部處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農林部, 文教部, 保健社會福祉部 등이 각기 관장하는 고등교육 기관 또는 연구 기관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다.

2) 發達에 따른 變化

인도의 高等教育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특징은 우리나라에서처럼 그 量的 增大에 있으며 이 양적 증대는 다시 여러 가지 變化를 유발시키고 있다. 먼저 數의 增加에 관해 살펴보면 1947년 獨立時 그 나라에는 21개의 綜合大學校가 있었으나 1986년에는 157개교로 증가했다(UNESCO, 1986). 이들 大學校 傘下에 수용된 單科大學 수의 증가는 1947년에 533개교이던 것이 1986년에는 5,500개교를 넘고 있다. 한편 학생 수 증가 현상을 보면 1947년에 26만 명이었던 것이 1986년 36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절대 수만 놓고 보면 미국과 소련 다음으로 世界 3위의 大學 人口를 갖게 되었다. 高等教育에 대한 投資를 보면 1951년에 1억 7,000만 루피이던 것이 1965년에 10억 9,000만 루피로 증가했고 1983년에는 다시 56억 9,630만 루피이니 33.5배가 증가한 셈이다. 全體教育費에서 본 高等教

育費도 1972년에는 9.5%를 차지했던 것이 1983년 13.2%로 증가했다는 통계이다(UNESCO, 1986).

그런데 이와 같은 量的 增大은 구체적으로 大學教育에 많은 變化를 초래하게 했는데 그것은 ① 專門教育의 확대, ② 고등교육 기관의 多樣化, ③ 고등교육 기관의 地域的·社會的 확산 그리고 ④ 高等教育의 質的 改善 등 크게 4가지이다.

첫째, 專門教育의 擴大에서 보면 당초 인도의 單科大學에는 전문교육 기관보다 一般教育(general education) 기관의 수가 훨씬 많았으나 지금은 專門教育을 실시하는 大學이 더 많아졌다. 즉 초기에는 모든 學間領域을 똑같은 重要度로 인정하고 교육하는 일반교육 중심의 大學이 많았으나 지금은 專門教育(professional education) 기관의 수가 많아졌으며 그 순위는 農學, 工學, 醫學, 獸醫學, 教育, 體育 등 특정한 전공 영역을 강조하는 單科大學과 大學校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全體적으로 보아 自然科學이나 技術系 전문교육 기관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들 專門教育機關에서는 學位와 디플로마(diploma), 그밖에 특정의 資格證을 주는데 學位로는 學士, 碩士 및 博士를 수여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다. 이리하여 이 나라의 大學은 많은 學間을 통괄하여 연구하는 綜合大學校로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둘째, 이러한 전문교육의 확대는 당연히 高等教育機關의 多樣化를 가져오게 하였다. 앞에서 크게 5가지 형태의 고등교육 기관이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 研究所나 非加盟課程機關(Institutions with non-affiliated courses) 등이 있어 왔고(弘中, 1975), 이들 기관들에는 다양하고 異色的인 학문 분야를 많이 갖게 되었다.

셋째, 초기 인도 高等教育의 擴大은 고등교육이 대도시와 같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獨立과 더불어 농촌 지역에 확산되었으며 또 옛날에는 高等教育 대상에서 제외되던 女子 또는 下層階級 혹은 少數民族(minority)에게도 고등교육이 개방되었다. 특히 歷史의으로 오랫동안 女子教育을 무시해 오던 이 나라에서 女子가 高等

교육을 받는 비율은 지극히 낮았으나 그것이 점차 向上되고 있다, 1947년에 男·女 大學生 比率은 90.6% 대 9.4%, 1965년에는 79.01% 대 21.9%, 1983년에는 3,133,093명 대 880,156명으로 71.9% 대 28.1%로 男·女 比率의 차가 크게 좁혀졌다. 이런 현상은 각 專政領域에서 당연히 그 비율 격차를 줄여줄게 했다(UNESCO, 1986). 또 下層 階級 또는 少數民族에 대해서는 憲法이 指定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1951년 이후의 '國家開發 5개년 計劃'에서는 이들의 教育과 福祉 向上을 강조하여 聯邦政府가 州政府에 대해 이들의 教育 經費 75%의 원조를 決定하였고 그들의 高等教育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特惠獎學金을 增액·배정해 왔다.

한편 高等教育의 質의 改善에 관한 대책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質의 改善이란 表現을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그 속에 圖書館, 實驗室의 확장, 教授法의 改善, 커리큘럼의 近代化, 學生 福祉 增進, 大學間 協同, 夜間이나 通信教育의 확대 등 많은 條件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國家發展 5개년 計劃을 통해 絕對貧困의 어려움 속에서나마 획기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印度 高等教育 運營의 特色

1) 大學補助金委員會의 活動

오늘날 印度의 高等教育 발달과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大學補助金委員會(University Grant Commission)'이다. 이 위원회는 1945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1956년 大學補助金委員會法(U.G.C. Act)에 의해 法定 機構가 된 이후 그 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모든 중요한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구는 大學教育委員會의 제안을 받아들여 英國의 '大學補助金委員會'를 모방한 기구로 그 목적은 大學教育을 발전시키고 조정하며, 大學에서의 教授와 試驗 및 研究에 대해 필요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운영·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本委員會는 大學의 財政的 必要를 규명하고 資金을 분배·지출하는 모든 節次를 책임진다. 또 綜合大學校와

單科大學의 發展基金을 마련하며, 政府가 모든 財源을 책임지는 中央大學校(Central Universities)의 運營 資金 금액과 州 管轄하에 있는 地方 大學校의 特別 운영 자금도 마련하는 책임이 있다. 나아가 거기에서는 大學校들이 共同的으로 사용할 施設이나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들을 운영할 기구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와 같이 大學補助金委員會는 經濟的인 資源의 마련 및 배당과 같은 主된 기능 이외에 일반적으로 인도의 學問社會와 大學體制에서 가장 중요한 統合 支援 기구로 기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大學 設立을 助長하고 그 정책이나 계획, 프로그램 또는 규정들을 만들어 필요한 資金으로 이를 강화해 주는 등 國家 水準에서 高等教育 政策이나 프로그램을 수립·집행하는 데 있어 中樞의 位置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大學補助金委員會의 역할은 그동안 인도 高等教育 발전과 관련하여 제출되어 수행되어 온 몇 가지 대표적인 중요 文獻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Biswas & Agrawal, 1986).

본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제출한 중요한 첫째 文獻은 제3차 5개년 計劃의 마지막 해인 1965년에 「大學教育 水準에 관한 報告書(Report on Standards of University Education)」이다. 이것은 大學教育을 향상시키고 조정하기 위해 또 大學에서의 教授와 試驗 및 研究 등에 관한 質의 水準을 평가·유지하기 위해 이룩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이다. 무엇보다 여기에서는 大學教育의 目的은 現存 知識을 유지·교류·발전시켜 印度의인 價値 體系를 추구하는데 둔다는 것을 규정하고, 당시의 大學教育 水準이 외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나 향상되어야 하며 入學 政策도 學問 발전과 社會 各 領域의 人力需要에 따라, 또 그 확장 보급에 맞게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學部教育은 15년의 교육 기간이 되게 연장하고 大學院은 專門 分野에서 學者와 科學者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科學教育 향상을 통해 大學教育의 水準 向上이 꾀해 질 것을 주장하였다. 또 學生의 自主的 學習을 助長하고 교수 방법을 채택할 것과 다양한 評價方法으로 試驗制度를 고치고 學生 선발과 教授 任命 및 教科課程 조직 등에서

大學에 최대의 自由를 허용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改革 추진에 있어 大學補助金委員會가 필요한 會晤를 주선하고 기관을 설치하며 財政的 뒷받침을 할 것을 明示하고 있다. 大學補助金委員會가 제시한 두번째 중요한 文獻은 1967년의 「單科大學 分科委員會 報告書 (Report of the Committee on Colleges)」로서 이것은 單科大學의 급증에 따른 財政的·空間的·施設的 지원과 教授要員의 次元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學生의 能力이나 成度, 適性 또는 抱負 등에 의한 個人差와 集團差에 적응하는 教育 實施를 위한 戰略으로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學部課程을 名譽課程(Honour Course)과 通過課程(Pass Course)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豫科 이후 3년을 교육시켜 大學院教育을 받을 수 있게 하고, 通過課程 이수자는 豫科後 2년의 職業 관련 기본 교육을 받고 졸업하게 하는 과정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教授方法은 個人指導를 강조하게 했으며, 필요에 따라 새 單科大學을 설치할 것과 加盟基準의 설정 및 보수 체계의 자율화를 제안했으며, 單大에서의 大學院教育은 綜合大學校와 協力下에서 실시하며 최소한 有資格 교수 3명 확보 후에 가능할 것도 규정하였다. 또 모범적인 單大에 대해 최대의 自律權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조치가 教育 內容과 方法, 시험 제도, 行政 등에서 구현되어 單科大學 教育의 質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게 할 것, 州와 州 사이의 學生交流, 單大와 綜合大 교수간의 봉급 격차 최소화 등에 관해 개선책을 제안했고, 끝으로 본 위원회의 財政的·行政的 支援을 다짐하고 있다.

인도의 大學教育 발전을 위해 大學補助金委員會가 제시한 세번째 중요한 자료는 「開放大學 (open university) 세미나 報告書」로서 이 세미나는 英國·美國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도의 文敎部 및 文公部가 공동으로 개최했었다. 여기에서 開放大學의 설립 취지는 大學教育을 받을 能力이 있고 의욕도 있으나 그 기회가 부여되지 못한 사람에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능력을 기할 대책으로 大學教育을 시킬 때가 되었으므로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開放大學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개방대학의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외국

의 기존 교육 기관에서 最上의 것을 도입하고, 教師教育과 技術者 教育도 실시하되 우편, 라디오, T.V., 夏季 강좌, 지역에서의 개별 또는 집단 지도를 통하는 등 다양한 통로로 실시하며, 기존 綜合大學校와 單大는 도서관이나 시설 이용을 허락해서 이 개방대학 교육에 협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외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단축된 기간에 능률적인 설립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촉구하고 이 과제 수행을 책임질 研究委員會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大學補助金委員會가 근년에 작성·제안한 중요한 文獻은 「인도 高等教育發展政策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India: A Policy Frame)」으로서, 이것은 향후 인도 高等教育의 발전을 위해 大學校가 初·中等 및 成人 등의 教育統合體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社會에 필요한 人力訓練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 政策과 哲學 및 戰略을 포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報告書는 政策 概要 부분과 本論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요 부분에서는 大學은 위 目的과 社會에 필요한 人力供給에 기여하는 한편 植民地時代의 가치 체계를 청산하고 印度의 價値體系를 확립하며 少數 中上層人에게만 독점된 大學教育을 모든 사람을 위한 제도로 개혁할 것과 人性教育의 중시, 初等義務教育의 普遍化, 능력에 따른 教育機會의 균등 및 고등교육과의 연계하에서의 中等教育改革 등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本論에서는 大學은 지식의 보존과 교류·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또 개인의 균형된 교육을 실시하고, 社會의 人力需要에 따른 人力訓練을 책임지며, 새 가치관의 개발과 科學의 태도의 함양, 안정된 人性 發達과 社會奉仕, 科學工學의 발전 또는 전체 교육 제도의 개선 등에 있어 새롭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것과 大學 設立의 地域의 不均衡을 시정하고 能力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직업 기술 훈련 기회를 줄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學部教育은 ① 기초 교과, ② 專攻敎科, ③ 現場實習, ④ 社會奉仕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수시키되 교육의 결과는 반드시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에 연결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大學院教育은 知識 創造와 研究開發로 그 수준을 極大化시킬 것이

며, 學生의 능력과 특성에 맞추어 多樣性 있게 敎科를 설치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 大學 行政은 각종 試驗을 加盟大學校 중심으로 또는 外部主導的으로 실시하는 것과 같은 中央集權的 樣式을 지양하고 學科中心 또는 單科大學中心의 分權的 行政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敎授와 學生에게 學問的 見解를 자유롭게 표현할 權利를 보장하고, 大學이 下級學校나 地域社會에 봉사하고, 成人敎育的·平生敎育的으로 擴張될 것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大學敎育 수준 향상책을 위해 人的·物的·財政的 投資가 수반되고 敎授의 적극적 참여와 學生의 강한 動機化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등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大學補助金委員會가 改革의 측면에서는 물론 全體敎育制度나 質的 向上, 지역적 균형 유지, 교육의 평가 등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方向 指示를 하고 있다. 이밖에 大學補助金委員會는 그 실적에 관해 거의 매년 報告書를 내면서 오늘의 인도 고등교육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2) '새 國家 敎育政策'의 실시

독립 후 인도 政府는 무엇보다 敎育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발전 요소라 보고 敎育制度를 크게 개편하고 中央敎育委員會(Education Commission)를 구성하여 그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그 노력에 의해 1968년에 최초의 '國家敎育政策(National Policy on Education)'을 수립하여 敎育의 發展과 現代化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인도 敎育 전반에 관한 體系的·現代的 政策이 담겨 있으며, 특히 高等敎育에 관해 살펴보면 單科大學이나 專攻學科의 定員은 시설·설비나 敎授 수에 근거해서 결정할 것을 비롯하여 기금 확보 후 敎育水準 유지의 확신이 있을 때 新規大學을 설립할 것, 大學院敎育과 연구 기능 향상에 유의할 것, 또는 파트 타임(part time)制 및 通信過程에 의한 大學敎育 실시 등을 주요 골격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그 이후 20년간의 時代的 變化와 社會的 壓力에 의해 강력히 대두된 國家發展에의 要求에 비추어 1986년에 '새 敎育政策(New National Policy on Education)'을 채택

하여 새 시대의 敎育指標로 삼고 추진중이다. 이 요청은 1984년 원래의 文敎部를 '人間資源開發部(M.H.R.D.: 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로 변경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人間資源開發部 主導下에서 23개 영역의 전문가와 원로 교육자가 위촉받아 연구되어 심의·채택된 이 새 敎育政策은 敎育制度에서부터 敎育 內容과 過程, 女性敎育, 下層階級 또는 소외 지역인의 敎育, 초·중·고등교육과 特殊兒와 成人을 위한 敎育, 기술·경영·직업·건강·체육 등의 敎育, 敎師敎育, 研究開發 및 評價와 試驗制度 등 敎育 전반에 관한 政策이다.

高等敎育과 관련해서 '새 敎育政策'이 담고 있는 영역은 一般高等敎育에 관한 것은 물론 開放通信敎育, 農村大學校와 敎師敎育 등이다. 먼저 일반 고등교육 政策에 있어서 그 나라 고등교육 기관들이 지닌 시설이나 설비에서 격차가 심하고, 研究機能도 낭비적이며, 大學敎育의 시대적·사회적 要求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등 부적절하고 非機能的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새 敎育政策'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것이 自律性을 신장시켜 주고 財政 支援을 하며 相互協助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條件이라 하고, 그 구체적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고등교육 기관의 統合과 擴張을 합리적으로 이룩해야 하며 이것은 大學校와 大學, 學科의 설립 기준을 미리 작성하여 그 기준을 갖춘 후 설립 또는 설치하고, 研究機關과 敎育機關間의 협조 체제와 능률적 운영 체제 및 능률적인 입학 시험 제도 개발 등으로 실현해야 한다.

둘째는 加盟單科大學의 自律性을 신장시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綜合大學校法을 고치거나 母大學校가 필요한 指針이나 支援 對策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下層階級이나 낙후 지역 加盟大學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여 가능한한 모든 加盟單科大學들에게 커리큘럼 작성이나 敎授法, 評價 또는 學位授與 등에 自主性을 허용해야 하고 母綜合大學校가 진밀히 협조해야 한다.

세째는 機能的인 敎科 設置를 함으로써 大學

敎育의 발전을 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커리큘럼이 攻攻分野의 새로운 발전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大學間 교과 이수율의 교류를 확대하며 이론과 실제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평가도 적절히 개편하여야 가능하다.

네째는 敎師敎育을 개선해서 실현하는 정책이며 그것은 무엇보다 敎師의 낮은 經濟·社會的身分과 地位를 개선하고 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이론·방법·가치 체계 등을 개혁하고 창의성을 조장하도록 敎師敎育 제도와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職業 및 現職의 두 課程이 재편성되어야 하며 세미나, 워크샵, 기타 협의회 참석도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는 力動的 研究 遂行을 권장하여 실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綜合大學校 밖에 있는 연구 기관들이 종합대학교를 중심으로 통합되도록 하고 理工系와 人文·社會系列의 기초 분야 연구를 강화하고 研究에 기초한 學問 발전을 지향하며 필요한 研究費를 확보하고 協同的 研究 施設의 확보와 장학금 확충을 통한 研究要員의 확보 등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여섯째는 大學行政의 能率化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시설을 확충하여 學生의 모든 자료를 컴퓨터 리스트를 만들어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통해 全國의 다른 大學들과의 연구 및 도서 자료들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일곱째는 州와 聯邦政府에 高等教育 발전을 위한 機構를 활성화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대책이다. 州에는 '州高等教育委員會'를 강화하여 고등교육 지원 방향을 제시하게 하고 새 大學 設置를 조언하며 연방 정부와 大學間의 유기적 협조를 측면 지원하고 中央의 '大學補助金委員會'에 필요한 助言을 하며 地域의 大學發展計劃의 심의 등을 한다. 한편 聯邦 機構는 인도 高等教育 政策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大學院敎育과 學問領域間의 協力 研究를 지원하며 大學補助金委員會의 財政 調達에 직접·간접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여덟째는 高等教育 機會의 機動性(mobility) 원리를 실현하여 대학 발전과 그 기여를 이룩하려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느 지역의 大學에도 진학할 수 있고 敎授陣도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최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全國 水準에서 充員하며 기숙사 시설과 교수 숙소의 확보, 장학금 제도의 확충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通信·開放大學校에 관한 새 敎育政策은 비용이 적게 들고 융통성이 있으며 혁신적 敎育 體制로 크게 권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85년에 'Indira Gandhi 開放大學校'를 설립하여 이 敎育 실천의 주도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州 傘下에 지역 개방대학의 설치도 힘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도 특유의 農村大學校(rural university)에 관한 새 政策도 제안하고 있다. 이 농촌대학교는 一般의인 大學이 갖는 입학 기준은 없고, 잘 짜여진 敎科도 없으며 엄격한 學位授與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統合敎育 機關으로서 橫的으로는 科學, 技術, 人文·社會科學의 구별없이, 또 縱的으로는 初等敎育에서부터 高等敎育까지의 모든 단계의 敎育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이는 2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 중 自然發生的으로 시작한 것인데 오늘에 이르러는 敎育뿐 아니라 自由化 운동의 중요한 기관으로 그 공헌이 인정됨에 따라 그의 개편에 따른 기능 강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 기관으로 'Gandhian 기초敎育(Gandhian Basic Education)' 大學이 유명하고 모범적이어서 이 기관을 중심으로 개편이 제안되고 있다. 敎師敎育에 관한 것은 위 4항과 후속될 改革動向에서 언급한다.

3. 高等教育의 새 動向

1) 三角構造的 연계 강화

인도의 국가 발전에 있어 高等教育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중시되는 것은 그것이 人力開發의 質과 社會的 분위기를 좌우하는 決定的 要因이 되기 때문이라 한다. 1951년 이래 계속된 國家發展 5개년 계획의 각 계획 기간마다 敎育 전반 또는 고등敎育이 담당할 역할을 규정·실행해 오고 있는데, 특히 1980년대초의 6차 5개년 계획에서는 모든 段階의 敎育이 잘 연계되고, 특히 敎育機關(大學)과 研究機關 및 産業體

가 三角構造의으로 잘 연계되어야 교육이 전반적인 국가 발전의 추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高等教育이 核心的 役割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의 필요성은 그 나라 대학 졸업자의 就業이 극히 불량하여 훈련된 人力이 국가의 공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몇 가지로 시도되고 있다.

첫째로 국가 발전의 3대 領域인 농업 발전과 産業化 및 科學技術의 발전을 위해 農科大學과 經營大學 또는 工科大學 등을 설치하여 해당 영역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교육이 社會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졸업자의 취업이 극히 불량한데 이것은 각 분야에서 적절히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근거한 開發計劃下에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의 영역별 學問의 발달과 産業體 그리고 研究開發의 3자간에 구조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형성시켜 이러한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그리하여 적절한 연구에 기초하여 각 교육 기관의 커리큘럼이 관련 산업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로 구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예술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상업 등 일반 고등교육도 새로운 학문들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교과와 응용교과를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둘째로 學科나 教育機關의 형태에 있어서 教育內容이 研究에 기초한 것인가의 점에 있어서, 또 教授方法에 있어서 갖는 不適切性 때문에 교육과 취업간의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歷史性에 맞고 社會的으로 적절한 새로운 형태의 大學을 설립하고 새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研究에 더한 체계적 지식을 발전시키고, 또 여러 學問領域에서 구조적 현상에 입각한 教材를 개발하여 위의 不適切性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째로 大學의 學問領域間 또는 開發프로그램 간에 있어서 또는 教育의 여러 단계간에 있어서 수평적—수직적 연계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가령, 여러 學科가 공동으로 어떤 教授—學習過程에 참여하거나 大學과 産業體間에 세미나나 자문, 방문, 파견 등의 방법을 통해 새 學問과 기술 현

장간에 相互交流하는 水平的 연계도 강화되어야 하거나 대학 교수가 초·중등학교에 가서 자문하고 지원하는 수직적 연계같은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네째로 인도인은 누구나 地域的·社會經濟的·性的 差別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의 실시를 통해서도 시도되고 있다. 가령, 지역적으로 격차가 없이 공평한 분포로 大學을 설립하고, 社會經濟的으로 불리한 학생이나 이민 학생을 위해 특별 입학 조치나 장학금 제도를 설치하며, 女大生을 위해 特別課程을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전술한 開放·通信大學校의 확장·보급을 통해서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7차 5개년 開發計劃(1986~1990)에서도 이와 같은 三角構造의 연계 강화를 한층 꾀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로 産業體에서는 전문 분야의 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최대한 지원할 것, 둘째로 大學은 필요한 學科를 계속 설치하고 繼續教育도 실시하며 필요한 調查研究와 課題遂行 또는 社會에 대한 직접 봉사를 통해 地域社會의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 세째로 産業體의 개발 전문가와 大學의 學者들간에 특별협의체를 조직하여 기능적으로 相互交流가 이루어지게 적극 권장할 것을 규정하여 產學 連繫의 구체적 강화 방안과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2) 研究開發 機能의 확대와 활용

전통적으로 인도의 대학은 학생을 교수하고 여러 종류의 시험을 실시·관리하는 기관으로 존속해 왔다. 그러나 大學이 현대화됨과 아울러 새로이 研究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의 三角構造의 연계에서 이미 그 필요성과 그간의 낮았던 연구 공헌도가 지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이 연구 기능을 충실히 조장하기 위해서는 大學校 안에 설치된 學科들에 대해, 또는 學科에 소속된 教授 개개인에 대해 研究의 自由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연구가 中央集權的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여러 節次 때문에 자유는 제한되고 研究의 速度와 效率性이 제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教育政策(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986)'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점들은 모든 大學에 균형있게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고 연구를 위한 분위기도 부적절하며 연구 문제도 開發 테마(development theme)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에 치우쳐 있고, 또한 학문 영역간의 협동적 연구도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더 나아가 연구 시설 또는 이용 자료나 정보가 불충분하고 재정적 또는 機關의 研究 支援體制도 없으며 전문 연구 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연구 활동이 教育課程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연개도 없다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研究開發의 문제점이 결국 大學의 발전과 産業社會의 발전에 공히 불충분하고 부적절하게 영향을 주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次元에서 研究開發의 공헌도가 절실하다는 전제에서 대책이 세워지고 있다. '새 教育政策'과 그밖의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강조되는 측면은 研究란 高等교육의 본질적 요소로서 새로운 知識과 洞察力을 창조하고, 高等교육의 過程에 자극을 주고 활기를 높이는 역할을 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인도의 국가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기능을 효과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첫째로 연구가 高等교육 기관의 統合部分이 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데 이는 커리큘럼이나 교수 방법이 기능적이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하며, 창의성 및 적절성을 유지하도록 할 뿐 아니라, 研究機關의 연구 수행 기능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도록 하며, 개인 연구자에게는 연구 수행의 자유를 한층 부여하는 반면 責任 또는 責務性(accountability)을 지고 헌신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로 研究의 質을 向上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앞의 사항과 관련되나 특히 文獻이나 資料 또는 연구 시설을 갖추어 주고 그 活用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며 大學 研究 기관에 유능한 연구 능력 소지자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와 研究 費를 적절히 제공하며 연구의 관리와 評價를 엄격히 실시하여, 나아가 연구자와 연구 결과 이용자 사이의 연계를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세계는 研究에 대한 支援策을 강화해서 연구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인데 이는 필요한 財源을 조달·지원하고 새로운 연구 운영 체제를 확립해 주며, 기초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가 계획되고 조정되어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 시키며 또 큰 재원이 소요되는 연구에서는 協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研究 施設을 설치함으로써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네째로 研究의 협력과 연계에 관한 強化策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양한 연구 영역 및 이와 관련된 연구 기관과 연구 이용자의 다양성, 그리고 연구 체제의 지역적 포괄성 등의 관점에서 모든 수준의 집단이 참여한 研究委員會 같은 것을 學科 또는 大學에 만들어 大學間 또는 學問領域間 협동 연구를 조장하여 관련 있는 學科間 또는 大學間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연계하에서 연구 결과를 조정하고 계획하고 평가하며 大學體制內에서의 연구 추진과 재원 조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조장되고 있다. 또 中央研究機關의 연구원이 다른 유사한 연구 기관 또는 지방 연구 기관에 협조하고 도움을 주며 기여하는 人的 활용의 機動性(mobility)을 통해서 또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이로운 영역의 연구를 우선 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추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여하려고 노력중이다. 다섯째는 연구 개발을 위한 財源의 확보 지원을 통해 그 活性化를 꾀하고 있다. 대개의 開發途上國家가 GNP의 2~3%를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데 반대 인도는 1% 미만인 0.85%에 불과하므로 연방 정부나 州에서는 연구 재원을 널리 찾아서 경제 발전에 시급한 理工系 분야에 우선 지원하며 연구의 능력과 質을 높이고 나아가 대학의 質과 水準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 연구 비용을 위해, 연구용 건물과 시설·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研究人力 양성을 위해, 또는 필요한 圖書와 專門雜誌, 기타 문헌이나 정보 수집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基本投資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연구를 심사하고 평가할 機制를 만들어 연구를 구체적으로 점검·조절하고 形成的으로뿐 아니라 總括的으로 또는 주기적인 연구 결과의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연구 기능의 향상과 연구 결과의

活用度を 높이기도 하고 있다.

연구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科學과 工學에 중점을 두되 거기에 그치지 않고 人文·社會科學과 農業 및 醫學의 각 분야에 걸쳐 基礎研究뿐 아니라 應用研究 및 研究設計와 그 開發에 관한 범위까지 대상으로 삼도록 촉구하고 있다.

3) 試驗制度的 개선

오랜 기간 인도는 시험 제도의 不適切性이 고등교육의 質을 크게 훼손시킨 요인이라고 논의되어 왔다. 북쪽 산악 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大學들이 2學期制과 3分期制(terms)를 채택하고 있는데 學期 또는 分期의 성적은 물론 就業과 大學院 入學이 모두 이들 시험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시험은 年次 試驗을 위시해서 추가 시험과 특별 시험의 세 종류로 실시되고 있다. 시험 성적 그 자체는 물론 그것이 學位授與와도 관련되기에 취업과 진학의 결정적 尺度로 작용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험은 인도 대학의 學事 日程과 커리큘럼 운영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가령, 커리큘럼에 따라 ① 教授한 후, ② 앞의 시험을 실시하고, ③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세 가지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계획대로 學事 日程을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워 그 계획이 크게 지연되는 차질을 가져 오는 것이 예사였다. 그렇지 않으면 皮相的인 講義를 통해 日程을 지키기 마련이었다. 또 대개의 경우 試驗出題者가 外部 人士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에게 시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시험 내용이 暗記 위주로 되는 경향이었으며, 특히 등교하지 않고 自學을 위주로 하는 開放大學의 學科 중에서는 이 시험 결과만 가지고 學位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試驗만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大學까지 설립되는 폐단이 있었다.

이러한 不適切性을 개혁하려는 노력은 이미 1949년 '大學教育委員會'에서 교수와 시험 및 평가의 3자가 서로 피드백을 주며 機能的 統一을 기해야 한다는 原理下에 '시험 제도 개혁'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이후 대학마다 試驗 자체가 教育目標가 되어서는 안 되며 教授—學習過程에 統合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補完 對策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 오고 있다. 가령, 問題銀行을 만들어 出題 計劃을 세우고 교과 목표와 내용에 맞추어 출제·채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대학에서는 100점 滿點制보다 A, B, C, D 같은 相對的 評點制를 채택해서 점수를 주는 과오와 채점자의 독단을 예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農大나 工大에서는 學期制를 도입하여 單位 學點取得制(unit course)를 통해 교과 선택의 융통성을 강화하는 한편 그 교과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비하도록 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날 인도의 大學 중 50% 정도는 각기 이러한 시험 제도의 보완 노력을 하고 있으며 문제는 20여 綜合大學校에서 채택중이고, 評點制는 1/3, 그리고 學期制는 1/2의 綜合大學校에서 시행중이다. 이러한 試驗制度的 개혁 동향과 함께 1982년 大學補助金委員會에서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사항이 포함된 시험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相當한 호응을 받으면서 시험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① 한 考查의 실라버스는 小主題에 따라 그 내용을 하나의 단원 또는 영역으로 조직해야 하며 단원에는 일련 번호를 기입한다.

② 出題者는 이전의 출제 내용을 반복 출제할 수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매년의 출제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③ "10개 問項中 5개를 선택하여 답하라"는 식의 출제 방법은 학생이 통과할 수 있는 知識 領域을 제한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고로 이런 경우에는 考查 실라버스 안의 각기 단원에서 선택 문항을 제시하도록 한다.

④ 시험은 반드시 대학에서 계획된 最低 水準의 강의나 실험 실습 시간을 마친 후 실시한다.

4) 教師 養成의 새 動向

다른 나라에서처럼 인도에서도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投入은 教師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전제한다. 어떤 政策이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교사의 教授過程과 개인적 시범을 통해 해석되고 실천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교사 양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

약 때문에 이러한 교사의 역할 수행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교육이 州의 책임하에 있는 이 나라에서 교사교육이 당면한 문제는 첫째로 많은 종합대학교는 소속 교원 양성 기관(單大)들의 입학 기준이나 교수 요원의 자질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두고 있으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못하며 또 低質의 교사 양성 대학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들 교사 양성 기관들은 母大學校나 州教育行政機關, 또는 다른 교사 양성 기관과의 유대가 없어 서로 기능적 협조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양성 기관의 시설·설비나 교사의 수급 관계가 무계획적으로 시행되므로 지역간 격차가 심해 결국 교과에 따라 과잉 또는 부족한 교사 배출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최근 여러 종합대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教育學士 또는 教育碩士課程의 통신교육이 지식 전달이나 교수법 또는 교육 자료 등에 있어 대단히 불충실하고 부족한데도 이 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을 주는 점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Singh, 198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質이 높은 교사 양성을 하기 위해 ‘새 教育政策’에서는 최우선 순위로 교사교육의 개선책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人間資源開發部(M.H.R.D.)’는 이를 위해 ‘教師教育 聯邦支援案(Centrally-Sponsored Scheme of Teacher Education)’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크게 5가지 방법으로 교사교육 개혁이 진행되며 이것은 물론 고등교육의 한 측면으로 중시되고 있다. 첫째는 1986년부터 ‘대규모 教師教育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연방 정부와 지역(region)의 여러 기관이나 大學들에서 初·中等教師를 대규모로 수용하여 현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聯邦政府 수준에서는 國立教育研究訓練院(NCERT), 그리고 NCERT에 소속되어 있는 4개 地域 師範大學(Regional Colleges of Education)에서 現職教育 主管者와 자원 인사를 위해 실시하고, 州에서는 州教育研究訓練院(SCERT)과 교사 양성 대학이 중심이 되어 현직 教師에게 단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全國規模로 실시하는 이 계획은 50만의 初·中等教師를 대상으로 2,500개 기관이 주도하되

10,000개 장소에서 실시중이다. NCERT에서 450명의 現職教師 훈련 요원을 각 教育委員會와 양성 교육 기관에서 선발하여 35개 ‘훈련 모듈(modules)’을 가지고 요원 훈련을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각 훈련 장소에서 10일 기간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새 教育政策과 革新的 教授法 또는 이론에 관해 討議中心으로 실시하며 많은 視聽覺 教具도 활용하고 있다. 이 계획은 1990년까지 전국의 초·중등 교사교육을 완료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로는 地方教師養成所(District Institute of Education and Training), 師範大學(Colleges of Teacher Education) 및 教育大學院(Institutes of Advanced Educational Studies) 등의 교육 기관을 설치하여 教師教育의 개혁을 꾀하고 있다. 地方教師養成所는 주로 初等教師와 成人教育 담당자의 자질 개선에 관여하며 職業 및 現職教育을 통해 교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급하고, 교육 계획과 경영 방법 및 교육 결과의 評價法을 교육하여 그곳이 바로 學習 센터의 기능을 하며 教授工學 및 실험 연구 등에도 중점을 두고 훈련한다. 특히 地方分權化 원리를 구현하는 이념을 실현한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師範大學에서는 주로 中等教師를 대상으로 理論과 實際間, 또는 內容과 教授間의 격차를 매꾸는 데 중점을 두면서 專攻領域의 심화와 教師에게 필요한 性格 訓練, 教授 媒體의 活用, 실험 연구, 지역 사회 봉사 등 기능을 훈련하며 資源 센터로서 또는 教師의 生涯教育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꾀하고 있다. 한편 敎員教育大學院은 初等教師의 大學院教育, 初·中等教師教育者의 現職教育, 地方教師養成所의 要員과 教育研究要員의 훈련 과정을 통해 그 改善案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研究와 實驗 및 改革을 강조하며 高級 教育理論과 教授工學도 중요시 하고 있다. 이 방안은 1987년 이후 실시되고 있으며 1차로 여러 教育大學 중 50개를 이 大學院으로 格上시켜 출발했고, 이들 기관에 대하여는 시설비나 연구비를 특별 지원하고, 教授와 學長級 간부도 특별 증원해 주는 조치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세째로 추진되고 있는 教師教育 改革案은 敎

師教育을 위한 커리큘럼 改革을 통해 試圖되고 있다. 1987년 '인도 教師教育協議會'의 제안에 의해 개정된 '中等教師 教育用 커리큘럼'은 ① 교육학 이론, ② 地域社會 奉仕, ③ 內容—教授 연결을 위한 教育 實績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教育學 理論 부분은 인도 사회에서의 教師와 教育, 教育心理學, 기타 관련 敎科 등 세 가지 영역의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로 地域社會 奉仕 부분은 해당 教師教育機關이 위치한 地域에 관한 研究뿐 아니라 그 지역의 각종 開發 活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여러 敎科를 이수시키고 있으며, 셋째로 內容—教授 연결을 위한 教育 實績 부분에 있어서는 각기 敎과 的 교수 能 力을 향상시킴에 있어 필요한 기능과 요소에 관한 훈련을 현장에서 집중 훈련시키는 방향을 취해 과거의 비능률적이던 教師教育 커리큘럼을 現 代的 이념이나 실제에 맞게 개정하고 있다. 넷째로 진행되는 노력은 高級敎職者大學(Academic Staff College)을 설립하여 새로 임명되는 敎 師 養成 教授를 위한 정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실시·조양 및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87년 '大學補助金 委員會(U.G.C.)'는 1차로 48개 綜合大學校에 1개교씩이 高級敎職者大學을 승인하여 새로 임 명된 教授에게 ① 社會와 환경 및 教育의 연계, ② 教育哲學, ③ 인도 教育制度和 教育學, ④ 性格 發達, ⑤ 專攻敎科, ⑥ 教育 測定과 評價 등의 영역에 관한 敎科목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知識의 낙후를 막고 새 知識을 강의 계획 속에 삽입해야 한다는 전 제가 강조되고 있다. 끝으로 새 教育政策에서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動向은 教師教育 關聯機 關들간의 긴밀한 유대 형성이다. 현재 약 1,000 개 初等敎師 敎育 기관과 550 개 中等敎師 敎育 기관끼리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資料의 교류와 敎 師 能力의 발전과 이용에 기여하며 教師教育과 學校教育의 질적 향상과 유지 및 敎사敎育 평 가에 있어서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 로 敎사敎育 기관간, 이들 기관과 大學校 敎育 學科間, 이들 기관과 一線 學校間, 職業과 現職

敎育間에 기능적 유대와 협조가 수직적·수평적 으로 형성될 때, 이러한 教師教育의 機能性이 보다 활발하게 발휘됨은 물론 資源의 낭비도 막 을 수 있으니 한층 바람직하다는 점 때문에 강 력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유대 관계는 統一 된 教師教育 制度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것 은 결국 學校教育의 개선을 가져오게 하는 전제 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4. 맺는 말

인도 高等教育은 원래 英國의 傳統下에서 출 발했고 아직도 그 영향이 크지만 의연히 인도적 인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국 가 발전이라는 절실한 현실적 압력하에서 統合 的이고 機能的이며 生産的인 高等教育을 실현하 는 가장 중요한 教育體制로 받아들인 점에서 그 러하다. 大學은 이제 그 社會 각 領域 發達의 中 樞가 되고 社會 變化의 核心體로서의 기능을 발 휘하기 위해 무섭게 걸진하고 있다. *

〈參考文獻〉

- 弘中和彦, (1975), 獨立インドの高等教育, 印度教育 研究, 第87集, pp.158~180.
- Biswas, A. & Agrawal, S. P., (1986), *Development of Education in India*, New Delhi: Concept Publishing Company.
- Ministry of Education, (1985), *Challenge of Education*, New Delhi,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986), *National Policy on Education*, New Delhi: 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 Singh, L.D., (1988), *System of Teacher Education in India*, New Delhi: National Council of Educ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 UNESCO, (1986), *National Case Study on Higher Education in India, Bangkok*, UNESCO Regional office for Education.